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14과 먹어라 먹지 말라

[창1: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하여 생명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며 힘을 얻는다. 현재의 인생은 먹지 않으면 그 생명과 존재를 존속시킬 수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은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생명과 존재를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순간마다 증거하는 동작이다. 숨 쉬는 것도 물론 그렇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이 챙길 수 있으나 숨 쉬는 것은 사람이 챙겨주지 못한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이 창조주의 끊임없이 공급하는 생명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적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부모가 태어나는 자식에게 나타내는 사랑의 맨 처음 모습이 먹는 것을 챙기는 것이다. 사랑을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것이다. 스스로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면서 나타내는 사랑이 참 사랑일 것이다.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먹는 것을 챙겨주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사람에게 맨 먼저 챙긴 것이 바로 먹는 문제였다.

1. 사람에게 먹을 것을 창조하여 주셨다.

[창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1: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지정해 주셨다. 창조주께서 정하여 준 식물(食物)만이 사람이 먹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식물(食物)을 처음부터 따로 식물(食物)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사람의 식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식물로 창조하여 주신 것만이 사람의 식물이다.

[딤후4:3-5]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을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믿은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해석이 옳다면 사람은 돌도 먹고 아무 물질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먹을 거리에 대

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것이겠는가.

[마7:9-11]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시다. 그렇지 않겠는가.

2. 홍수 후에는 허락한 식물을 창조한 식물에 더하여 주셨다.

[창9:3,4]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 채 먹지 말 것이니라.

홍수 후에 황폐한 지상에 번성하는 노아의 후손들이 먹지 못하여 기한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허락된 날들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 받을 날과 구원의 날로 삼아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허락하셨다. 피를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이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제한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레3: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에는 피 외에 기름도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레11:1-47] 하나님께서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주셨고, 새와 곤충 중에서도 구별해 주셨다. 같은 말씀이 신명기 14장에도 있다. 신명기에는 동물들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다.

동물; 새김질하고 발이 쇠발처럼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들의 고기는 먹을 수 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어도 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신14:4-8]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5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불기 흰 노루와 빨 긴 사슴과 산양들 6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7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8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고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다.

[신14:9,10]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10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날짐승; 특징을 따라 구별하지 않고 그 종류를 다 말씀하셨다.

[신14:11-20]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12 이런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응과 13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14 까마귀 종류와 15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중

류와 16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17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18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19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20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곤충; 날개가 있고 뒤에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들은 먹을 수 있다.

[레11:20-23]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21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22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베짖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팻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23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기타 종류; 발이 많은 것과 배로 기어 다니는 것은 먹지 못한다.

[레11:29,30]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30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레11:41,42]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42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3. 음식을 이렇게 구별해야 하는 이유.

[레11:44,45]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식물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음식물을 구별하여 취함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22: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 거룩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거룩한 것과 관련하여 또 먹는 문제를 말씀하셨다. 먹는 것과 거룩한 것이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이다.

[벤전1:14-17]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레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20:26]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한 말씀의 중심은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는 어떤 변화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따로 떼어놓았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다.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4. 인류의 시조가 먹는 것으로 불순종하였다.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생명과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의 시조가 먹어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는 생명과 존재를 다 잃게 되었다.

[창3:17-19]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창1:29의 채소와 3:18의 채소가 다른 종류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원문은 다 같은 “에세브(עֵשֶׂב)”이다. 그런데 그 나는 장소가 달라졌다. 1:29은 지면의 모든 채소라고 하였고, 3장은 밭의 채소라고 하셨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연계 안에 창조해 놓으신 채소들을 수고 없이 먹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람이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 밭을 경작하고 채소를 심고 거두어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채소는 동일한 채소이다.

[롬14:20]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우리는 식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 식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이다.

여기 거리낌으로 머그는 다는 말은 14장 처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롬 14:2,3)는 말씀과 관련하여 “약한 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압력을 받아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먹는 행위를 말한다(Kasemann). 또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고기를 먹음으로써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강한 자들의 무절제한 신앙 행위를 가리킨다(Calvin, Hodge)는 등의 해석이 있다.

그런데 롬14:20의 “거리낌”은 원어로 “프로스코마(πρόσκομμα)”인데, “부딪히다.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것이나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딤후전 4:4,5절과 구약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비교하면 어느 특정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먹어서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바른 이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걸려 넘어진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것이다. 그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렸다.

5. 예수님은 식욕을 다스리는 본을 보이셨다.

[마4:2-4]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

나라 하시니.

40일을 금식한 후에 먹을 것으로 그를 시험하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이다. 가장 연약하여져 있을 때에 가장 연약한 바로 그 부분을 시험의 도구로 삼은 것은 참으로 사단다운 일이다. 우리에게도 사단은 그렇게 시험한다.

6.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음식으로 창조해 주신 음식을 먹는다.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아담이 금방 창조되었을 때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말씀으로 지정하여 주셨다.

[고전8: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서 거룩하게 해야 한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문제를 말씀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고전3:16,17]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후6:16-7:1]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전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잘못 먹고 마시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 그렇게 하면 죄가 아니겠는가.

[단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고전11:29]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만찬 예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대한 훈계로 볼 수도 있다.

7. 기타 생각할 말씀들

[사55: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

리라.

[잠23: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워주신 음식물에 대한 원칙을 깨닫고 그 원칙을 준행하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다.

재림교회에 음식물에 대한 기별을 주신 것은 1863년 6월 6일이다. 이때는 재림교회 대총회가 조직되고 15일이 지난 후이다. “건강 개혁의 대 주제가 계시로 나의 앞에 전개되었던 것은 1863년 6월 6일 미쉬간주 옷세고에 있는 힐리아드(A. Hilliard) 형제의 집에서였다.”(음식물에 관한 권면 481)

재림교회기별의 핵심 문제에 성소정결 문제가 있다. 성소정결 문제를 증거할 교단의 대총회가 1863년 5월 23일경에 조직이 완료되었을 때 그 기별을 증거할 성도들의 몸 성전이 정결해져야 할 것을 지시하신 것이다. 건강기별은 몸의 건강이 중심이 아니고 몸 성소의 정결이 중심이다. 이 문제는 성소문제를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 할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 이것은 재림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